

# 18세기 對日 使行體驗의 문화적 충격 양상

— <海槎日記>와 <日東壯遊歌>를 중심으로 —

이 동 찬\*

## 목 차

- |                       |                    |
|-----------------------|--------------------|
| 1. 들머리                | 3. 선진문물에의 충격과 그 반응 |
| 2. 문화 우월의식의 허상과 실상    | 3.1. 새로운 문물제도의 체험  |
| 2.1. 문화적 우월감과 관념적 허세  | 3.2. 선진문물의 수용      |
| 2.2. 대일인식의 변화와 일본의 실상 | 4. 마무리             |

## 1. 들머리

조선후기의 해외 旅行文學은 자연경치를 완상하면서 物我一體의 심정을 노래하기보다는 여행지에서 관찰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실제로 체험한 사건 등 현실적 삶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시기에 해외여행을 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당대를 민감하게 느끼며 살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들의 여행문학에 나타난 특징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와 국가관계 등 개인적·집단적 삶의 다양한 단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의 여행문학은 중국과 일본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임진왜란의 후유증에서 오는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는 12차례나 通信使行을 파견하였으며, 이때에도 燕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대

---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통신사들은 사행의 전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통례였다.<sup>1)</sup> 그리하여 임진왜란 후 최초의 통신사행(1607)에 副使로 참여했던 慶滙이 <海槎錄>을 남긴 이래 많은 使行錄이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영조 24년(1748)에 戊辰通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洪啓禧는 이들 기록을 총집하여 『海行摺載』라는 61편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엮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행록들은 그 필자가 정사·부사·종사관·제술관·역관 등으로 직책이나 신분이 다양했던 만큼 주목 대상, 기술태도, 접촉 인물 역시 필자에 따라 상이했다.

임진왜란 후 17세기까지의 사행록에 나타난 조선조 지식인들의 대일의식에는 적개심 내지는 華夷論의 사고로 인해 객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사행록은 儒學·禮法·詩文·書畫 등 우월한 우리 문화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상처가 아물고 朝·中, 朝·日관계가 한층 안정된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임병양란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西學의 전래로 일부 지식인들의 세계관과 인식에 변화 내지 확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특히 燕行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18세기 조선후기 사회에는 전통적 禮儀를 숭상하는 유가적 규범이 엄연히 존재함과 동시에 개방된 세계로부터의 새로운 문물제도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 관심이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 산업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중화적 세계관을 벗어남은 물론 이미 근대로 발돋움하고 있는 단계였다. 이러한 일본의 형편은 우리의 통신사행을 맞이하는 자세를 변화시켰고, 이에 조선도 사신의 행차가 거듭됨에 따라 변화하는 일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만 했던 것이다.

東萊府使로 있을 때 對馬島와 관계되는 일들을 명석하게 처리하는 등 당시의 일본정세에 밝았던 趙顯을<sup>2)</sup> 正使로 한 소위 癸未通信使는 12회에 걸친

1) 使行의 업무가 끝나고 書狀官이 朝廷에 보고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臚錄’이 있는가 하면 사행에 참여했던 개인이 기록한 ‘使行錄’이 있다. 전자는 實錄과 같은 형태로 객관적으로 쓰여진 事實 報告書의 성격을 띤 것이라면, 후자는 작자 자신의 사적인 견문이나 체험을 격식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기록한 것으로 주관성이 뚜렷하여 公式文書의 성격을 탈피하고 있다.

통신사행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측의 가장 열렬한 환대를 받았던 사신행차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 행차에는 몇가지 불미스런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朝·日간의 관계에 변화의 조짐을 예고하게 된다. 통신사 조업 일행이 德川家治의 承襲을 축하하는 江戸 방문을 마치고 回程에 올라 大阪에 머물던 甲申年 4월7일 새벽에 都訓導 崔天宗이 對馬島의 通事倭 鈴木傳藏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재미통신사행을 맞이하기 위해 일본이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부역을 하자 1765년 일본의 關東平野 북부의 주민들은 노동세에 항기하여 傳馬騷動을 일으키는<sup>3)</sup> 등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정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작품인 조업의 <海槎日記>와 재미통신사 당시 三房書記였던 金仁謙의 국문가사 <日東壯遊歌>는 조선후기 지식인의 세계인식과 대상국인 일본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해사일기>에 대해서는 김의환, 이혜순, 임형택의 연구를 통해 여기에 나타난 18세기 일본사회와 조·일관계 및 대일 사행 보고서를 접한 실학자들의 일본인식 등을 중심으로 간명하게 검토된 바 있으며,<sup>4)</sup> <일동장유가>에 대해서는 장덕순의 연구를 시작으로 최강현, 심재완, 이성후, 소재영, 박희병 등에 의해 사행의 노정, 견문내용, 작품을 통한 작자의 의식과 개성, 일본의 풍속과 문물제도 및 환경, 통신사들의 대일인식 그리고 巽本 등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진 바 있다.<sup>5)</sup> 이와 같은 기왕의 연구에 의하여 <해사일

- 2) 조업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성대중, 「海槎日記 序」와 김동주, 「海槎日記 解題」, 『국역해행총재』VII(민족문화추진회, 1975); 김의환, 「조업이 본 18세기 후반기의 일본사회와 조일관계」, 『현암신국주박사화갑기념 한국학논총』(동국대출판부, 1985); 이성후, 「조업과 김인겸의 대일관 연구」, 《논문집》제7집(금오공대, 1986) 등을 참조.
- 3) Ronald P. Toby, 박은순 역, 「조선통신사와 근세일본의 서민문화」, 《동양학》제18집(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8), 199쪽.
- 4) 김의환, 「앞의 논문」; 이혜순, 「18세기 후반 조선통신사의 일본 인식」, 『동방고전문학연구』(태학사, 1990); 임형택, 「재미통신사와 실학자들의 일본관」, 《창작과비평》 1994년 가을호.
- 5) 장덕순, 『한국문학사』(동화문화사, 1978), 290-306쪽; 최강현, 『한국기행문학연구』(일지사, 1982), 301-337쪽; 심재완, 「일동장유가 해제」, 『한국고전문학대계』 10(교문사, 1984); 이성후, 「앞의 논문」(1986)과 「일동장유가연구」(효성여대 박

기>와 <일동장유가>의 특징적 면모는 대충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서는 두 작품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동일한 사행을 배경으로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개인적 인식과 관심영역에 따라 그 내용과 표현형식에 있어 사뭇 차이가 나는 작품이다. 따라서 양자를 거시적이고도 포괄적인 안목에서 함께 다루어 보는 것 또한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기왕의 연구를 토대로 <해사일기>와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일본체험의 문화적 충격과 그로 인한 가치관 및 세계인식의 변화된 모습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사행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변모하는 조·일 관계와 그것을 인식해 가는 지식인들의 세계관의 확대를 파악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여행문학의 한 특징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간의 보탬을 줄 수 있는 작업이 아닐까 한다.

## 2. 문화 우월의식의 허상과 실상

18세기에 나타난 많은 여행문학은 여타의 여행문학이 그러하듯 타인의 세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깨우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고 진보된 사상과 문물을 도입·전달하는 계기도 되었다. 많은 燕行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여행은 흥취가 있고 기흥이 발달하여 험난한 노정도 두렵지 않았으며 돌아와 회상함에 있어 새벽의 꿈결인 양 느껴진 데 비해 일본여행은 그 동기에 서부터 적극적이지 못하며 중국 여행에서 엿보이는 것과 같은 호기심도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일본 여행자는 바다를 무사히 건너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출발 노정부터 고역을 맛보아야 했고, 아무 탈없이 돌아오는 데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었다.<sup>6)</sup> 이러한 사정은 일찌기 중국과 더불어 문화를 논하던

사학위논문, 1988) 및 「일동장유가의 이본연구」, 《논문집》제12집(금오공대, 1991); 소재영, 「18세기의 일본체험」, 『충격과 조화』(국학자료원, 1992); 박희병, 「조선후기 가사의 일본체험, 일동장유가」, 『한국고전시가작품론』2(집문당, 1992).

조선이 文化施惠國이라는 자부심으로 일본을 야만시해 온 데에 기초한다.<sup>7)</sup> 그 후 임진왜란의 수모를 겪으면서 일본에 대한 감정은 배타심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선입견들은 국제정세가 변모한 18세기에 이르러서까지 조선의 지배계층의 사고를 묶어 놓는 틀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 2.1. 문화적 우월감과 관념적 허세

조선은 전통적으로 文을 숭상했고 일본은 武를 숭상했다. 王道政治의 구현과 崇文思想이 지고의 가치였던 조선의 입장에서 武와 法을 중시하는 일본은 霸道政治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馬州 太守가 조엄과의 筆談에서 글을 몰라서 記 蕃實에게 代筆하도록 했다는<sup>8)</sup> <해사일기>의 내용으로 보아 일본의 위정자들 중에는 문자를 모르면서 오직 무력에 의해 정치를 행하는 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예법에 관해서도 조선통신사들의 눈에 비친 일본은 야만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예컨대, 일본인은 죽은 사람에게 棺槨을 쓰지 않고 灰葬을 하여 寺刹에 매장하고 神牌를 간직해 두었다가 거기에 제사 지낸다거나(조/57), “제형이 죽은후의 형수뉘를 거집삼아/

- 
- 6) 일본 사행 후의 이러한 심경을 “이미 王事를 마치고 관문을 나서니…정신이 쾌활하여 마치 새장에 갇혔던 새가 날개를 펴고 날으는 듯하다. 일행의 상하가 모두 기뻐서 뛰었으며, 병을 앓던 자까지도 억지로 기동하여 모두 몹시 앓던 병이 몸에서 떠난 듯하였다”(조/228)고 서술하고 있다.  
<해사일기>는 1975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국역해행총재』 VII을, <일동장유가>는 1984년 교문사에서 간행한 심재완 교주본을 텍스트로 하였다. 이하 인용문은 작자의 성과 그 면수만을 기술할 것임.
- 7) 이러한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하 모두 일본인을 가리켜 ‘왜놈’이라 하였다. <일동장유가>에만 하더라도 ‘왜·예·금수’ 등의 卑稱이 무려 50여 회 이상 반복 표현되고 있다.
- 8) 계미년 12월7일의 기록에 “예선이 등대를 잘못한 것과 상한 부선 개조하는 것을 가지고 조엄이 마주 태수에게 筆談을 보내어 상의할 것을 전했더니 마주 태수는 받아서 펴 보지도 않고 그의 從者에게 전해주며 돌아가서 자세히 본 뒤에 회보하겠다고 하니 그것은 혹 문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펴볼 수 없어서 그런 것인가?...다음날 마주 태수가 필답에 대한 回書를 보내왔는데...글이 능통하니 반드시 記 蕃實이 지은 것이리라”(조/108-109)고 기술하고 있다.

리고 살게 되면 착다하고 기리린다”(김/178)하니 각종 의례와 준칙을 유교의 예법에 따라 시행하고 스스로 小中華임을 자처하는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일본인의 이러한 행동은 패륜적인 것이다.

또한 일본은 洞里 가운데 집이 조금 큰 것이나 園林이 잘 가꾸어진 것이나 화초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절이고 神堂이니 이름난 모두가 부처를 위하는 곳에 있었다(조/178). 특히 <해사일기>에는 正堂에서 국서를 전할 때 “관백이 風折巾을 쓰고 純白한 옷을 입고 깃 치장이 없어 자못 袈裟의 모양과 같았다”(조/211)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일본이 유학을 소홀히 하여 배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단시하여 배척하고 神道와 불교적 요소를 숭상한다는 점에서 야만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sup>9)</sup>

이렇듯 조선과 일본의 治世術 및 문화의 차이 때문에 조선은 일본을 경시하였다. 그러나 조선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이와 같은 문화우월주의적 시각은 조선의 풍속이 옳은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내려진 상대적인 것이었다. 사행록의 필자들이 승례주의적 관점에서 일본을 보았기 때문에 그 풍속이 미개하거나 야만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崇禮主義者의 觀念的 虛勢는 詩文唱話에서도 잘 나타난다.

17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조·일간의 외교 현안이 줄어들면서 통신사행은 외교적 행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문창화를 비롯한 風樂·射藝·馬上才 같은 놀이 등을 일반 백성들에게 현시하는 문화적 사절의 성격도 아울러 지녔다. 특히 교련에 있어서 시문창화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신사를 수행하는 제술관과 서기들은 문필이 유여한 자로 선발함이 관례였으며 그 선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한 것은 물론이다(조/25-26). 재미 통신사의 경우 제술관으로 南玉, 서기로 成大中, 元重舉, 金仁謙이 발탁되었는데 이들을 四文士라 하였으며, 중인출신의 천재시인 李彦瑱이 통역관으로 수행하였다. 이들이 떠날 무렵 이례적으로 국왕인 영조가 직접 문사를 불러서 詩題를 주어 시험한 후 하교하기를 “너희들은 오로지 문사로서 나라에

9) 이러한 점은 朴趾源의 <虞裳傳>에서 일본을 “佛敎를 숭상하면서도 제대로 佛法을 지키지 않으며 儒學에 있어서는 캄캄한 칠혹과 같다”고 서술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욕되지 않도록 하고 돌아오라”고<sup>10)</sup> 하였으며, 귀국시 복명할 때도 사문사들에게 필담창화한 정황을 물어보고 자못 기뻐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에 대한 문화 시혜국으로서 조선의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동장유가>의 작자인 김인겸은 그의 직분이 삼방서기인 만큼 “식전부터 예놈이 무수이와/필담이 난감하고 슈창도 즈글하다/병드러 어려오나 나라히서 보낸것이/이놈들을 제어하야 빗있게 하심”(김/178)이 報國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우리 통신사들로부터 시와 글을 받는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겨 이를 無價의 보물로 생각한 듯하다(조/138, 김/180).<sup>11)</sup> 그렇기에 김인겸을 비롯한 四文士는 文章報國의 일념으로 온 힘을 다해 일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漢詩를 지어주었는데 그 수가 도합 천여 수나 된다(조/546, 김/286). 이러한 시문창화는 양국 문사들간의 공감대를 넓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라고는 해도 진심으로 우리의 문화와 예절에 감복하여 조선인으로 귀화하기를 원하는 慕韓倭人을 만들기도 했다.

김인겸은 駿河의 金絶河를 건너면서는 丙子使行(1636) 때 부사였던 東溟 金世濂 일행이 일본인이 준 금과 은을 물 속에 다 던지고 빈손으로 돌아온 일화를 되새기며<sup>12)</sup> “넷사름의 몫은 바람 뉘아니 흠모하리”(김/198)라고<sup>13)</sup> 읊

10) 元重舉, <乘槎錄>卷1 癸未年 7月24日條.

11) 이와 같은 당시의 사정을 朴趾源은 <虞裳傳>에서 “하나의 기예로 국중에 이름난 자라면 모두 데리고 가는데 詞章·書畫를 가장 중히 여기니, 왜냐하면 조선인의 단 한 글자라도 얻으면 양식을 싸들지 않고도 천리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해주고 있다.

12) 이 기록이 <해사일기> 갑신년 2월6일의 기록에는 “지난 병자년(인조 14년, 1636)에 수신사 참판 任統·東溟 金世濂·漫浪 黃稟가 사행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日供米 남은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니, 그들은 그것을 황금으로 바꾸어서 중로까지 쫓아와 주므로, 사신은 그 금을 이 하수에 던져버렸다. 그리하여 후인들이 이 하수를 ‘投金河’라고 일컫는다 하니, 그 청렴한 風格은 百世의 후에도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늙연히 우러러 사모할 만한 것이다”(조/ 172-173)라고 되어 있다.

13) 조엄도 金絶河에서 投金詩를 次韻하여 “장하가 흘러흘러 끊어지지 않으니 長河流不盡/동명의 맑은 바람 언제고 남아있네 溟老有餘清/폐백을 던져 버린 당사를 생각하고 損幣懷唐使/황금을 행장에 싣 옥생을 더럽게 봤네 裝金鄙陸生/

으면서 자신의 정신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에 김인겸은 “선비품이 되어나서 글지어 주어노라/갑술어이 바들소냐…”(김/138)하며 글값으로 주는 선물과 大緞 銀子를 모두 물리치고 손수 모범을 보인다.<sup>14)</sup> 이는 임진왜란과 결부된 배타적 대일 감정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김인겸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개똥고똥 예놈”에게 拜禮하기 싫다고 하여 關白에게 國書를 전달하는 행사에도 유독 참가하지 않았다(김/214). 이러한 自省鑑戒의 역사식은 결국 “개똥고똥 비린뉴물 다물속 소탕하고/수천니 녹십취물 도선싸흠 민드라셔/왕화의 목욕굽겨 네의국 민돌고쟈”(김/184)하는 의욕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은 일본에 비해 우월하다는 관념적 허세와 임진왜란으로 인한 적대감·배타심에 기초하여 중국과의 사대 외교에 절대적 비중을 두면서 일본과는 교린하려 했다. 이러한 조선의 태도는 변화한 일본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결국 양국 사이에 易地聘禮라는 외교적 역기능을 낳게 된다.

## 2.2. 대일인식의 변화와 일본의 실상

사행록에 작자 자신의 직접적 비판이나 주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단순히 사실 보고적 성격을 띤 公式文書라고만 처리할 수는 없다. 일본인의 의식을 조명하고 조선과의 차이점을 드러냄으로써 작자는 공적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사적인 견문이나 체험들을 내포적·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자는 규범적인 생활의 테두리에서 공적인 생활을 하는 현직 관료로

---

흘어진 산봉우리 얼음과 눈이 하얗고 亂山水雪皓/막바지 바다에는 물과 구름이 밝아라 窮海水雲明/진중하도다 동인의 뜻이여 珍重同人意/돌아갈 적엔 조각배 유달리 가벼우리 歸時一帆輕”라고 읊고 있다(조/432).

- 14) 이는 김인겸이 文正公 金尙憲의 玄孫이요 夢窩 金昌集의 從姪이라는 家系에 대한 우월감과 일본에 대한 철저한 문화시혜적 사고, 그리고 통신사절 가운데서도 자신의 글이 으뜸된다는 일종의 자만심을 엿보게 할 뿐만 아니라, “명도의 손주로서 문임의 썬히여셔/나라일노 가계되니 귀하고 귀혹하다”(김/12)며 “괴교물을 탐치말고 화국하고 도라오라”(김/14)는 王命을 받들어 그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예라 하겠다.

서, 또한 임진왜란의 참상을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기에 그는 자국에 대한 우월감과 함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詩와 書畵를 숭상하는 예의의 나라라는 단순한 우월감과 관념적 허세에서 벗어나 타국의 문물제도를 허심탄회하게 보고 깨닫을 줄도 알고 있었다. 일본에 대한 조선의 부정적 시각은 임진왜란에서 생긴 적개심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들을 淸과 같은 오랑캐 나라라고 여기는 감상적 우월감에 기인한 면도 있다. 따라서 18세기 여행자들은 일본에서 느껴지는 변화의 기운을 감정적 옹어리에 묻어 자존적 시야로만 보려하지는 않았다.

조엄은 <해사일기>를 기술함에 있어 이전의 사행록에 반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간결한 태도를 취했다. 또한 그는 국서를 받들고 있다는 이유에서 일본인들과의 시문창화와 같은 행위를 스스로 자재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都訓導 崔天宗의 살해사건 때문에 시흥에 젖을 여유도 없었다. 때문에 그의 글에서는 申維翰이 <海游錄>에서 보여주는 일본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가졌던 황홀한 도취나 일본인들에게 써준 시 6,000여수를 통해 가졌던 詩才에 대한 자기도취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이 조엄으로 하여금 일본을 좀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조엄은 대마도 주 平義暢을 “여느 오랑캐보다는 조금 다르다고 할만 하였다”(조/63)라고 객관적으로 보려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스스로 하지는 못해도 남의 시비를 의논하기를 좋아해 답답하다(조/96)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5) 김인겸이 사행 후 복명할 때 일본인들과의 시문창화를 함에 있어 “문지가 유여흐눔 왕왕이 잇스오나/시늘은 참혹호야 제술홀줄 모르더이다”(김/286)라고 하여 문화적 우월감을 보인 것과는 달리, 조엄은 “때로 저들의 標旗에 쓴 글씨나 站上의 병풍에 쓴 글씨나 혹 單子物件에 가늘게 쓴 것이나 문사들의 詩軸에 唱和한 것을 보면 필법이 혹은 기묘하였다…그리하여 글씨를 구하는 자가 연속 끊이지 않았으니 寫字官 뿐만 아니라, 일행 중의 조금만 글씨 쓸 줄 아는 이는 그 간절한 요청에 견디기가 어려웠다…혹자는 말하기를 조선 사람의 필적을 얻어서 간직해 두면 많은 福利가 있다 한다. 그러나 이는 이치가 없는 말이다”(조/137-138)고 하여 일본인의 이러한 행동에 문화 우위적 사고를 보이지 않고 냉정히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하겠다.

“글을 조금 아는 역관의 子姪은 다 科擧에 응시하고 그 선대의 업을 잇는 자는 매우 적으므로 다른 날 邊門의 일을 맡길 만한 자가 이로 인하여 얻기 어려워지니 이것이 더욱 더욱 답답한 일이다”(조/81)라고 하여 역관의 임무도 중요시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해간 禮物單자가 모자라 궁색해 보이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조/201,208-209).

이러한 의미에서 조엄이 사행을 떠나기 전 원역에게 曉諭한 글에서 “저 사람들을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비웃지 말고 忠信과 誠心으로 대접하며, 일본인이라 부르고 너라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조/564)고 한 조항이나, 禁制條에서 “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무례하고 공경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곧 그곳에서 重棍하여 엄히 다스릴 것”(조/564)이라 한 조목, 約束條에서 “육로로 갈 때에 절대로 급히 달려 문란하게 하지 말고, 또한 어느 곳을 가리키며 험뜯어 비웃어서 남의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해괴하게 하지 말 것”(조/565) 등의 내용은 단순히 사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조심에서 나왔다가보다 서서히 성장하는 일본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던 결과의 배려로 이해된다.

회를 거듭하던 일본 사행이 계미통신사행에 이르자 조선 사신의 위축된 듯한 형편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통신사들은 일본 내에서 얻은 폭넓은 견문과 예리한 통찰로 변모하는 일본의 모습을 직시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내에서 엿보이는 새로운 징조들은 앞으로의 변화된 조·일관계를 예견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이처럼 일본은 강성해진 그들의 문물을 바탕으로 점차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조엄의 계미통신사행이 있던 바로 그 해인 1763년에 일본에서 출간된 『朝鮮人大行列記大全』에서는 통신사가 일본에 온 유례를 神功皇后 설화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면서 通信使를 마치 朝貢使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sup>16)</sup> 반면 『草茅危言』의 저자 中井竹山은 조선통신사가 조공을 바치려 온 것이 아니고 그저 우호의 뜻을 전하는 것뿐이므로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라 할 수는 없으며 사신에 대해서도 객례로 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한탄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통신사 일행의 無禮와 客館에서의 한시문 증답의 폐해 및

16) 이혜순, 「앞의 논문」(1990), 881쪽.

조선과 일본 양국의 재정 등을 이유로 들면서 易地聘禮를 권장하고 있다.<sup>17)</sup>

조선통신사들에 대한 당시의 일본 지식인들의 시각에서 보이는 공통된 점은 통신사에 대한 막부의 정중한 접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일인 학자들은 일본형 華夷意識으로 설명하고 있거니와, 조엄이 일본의 접대가 이전만 못하다고 느낀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의식에서 조선을 夷로 간주하고 있는 일본내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것이다.<sup>18)</sup>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결국 순조 11년(1811) 통신사행의 영접은 대마도에만 국한하는 축소된 형태로 거행되었다.

이와 함께 통신사절과 일본인들과의 대화도 이전의 농담 섞인 이완된 분위기와는 달리 자못 진지함을 보이기도 한다.

齋閣大臣 源璵(필자 주:號 白石)가 “지금 서방 여러 나라들도 다 大清의 관복 제도를 쓰고 있는데 귀국만이 大明의 옛 의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묻자 平泉(필자 주:趙泰億)은 “천하가 모두 오랑캐를 따르지만, 우리나라만은 대명의 제도를 고치지 않으니 청국도 우리를 예의의 나라라 하여 감히 예의에 벗어난 것으로 우리에게 가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원여는 “제가 불민하지만 스스로 다행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大西洋, 歐邏巴 지방의 이탈리아 사람과 和蘭 사람과 琉球 사람, 또는 唐山 등 여러 산과 여러 항구의 사람들을 제가 다 직접 보았고, 지금에는 또 공들과 한집안에서 단란한 모임을 가졌으니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니, 靑坪(필자 주:任守)幹이 “대서양은 서역에 있는 나라 이름이지만, 구라파·이탈리아·화란 등 여러 나라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라고 묻자, 원여가 “귀국에는 萬國全圖가 있습니까?...서양이란 곳은 天竺에서도 수천 리나 되는데, 이른바 대서양·소서양이 있습니까”고 말했다.<sup>19)</sup>

17) 미야케 히데토시 지음·하우봉 옮김, 『역사적으로 본 일본인의 한국관』(풀빛, 1990), 96-102쪽 참조.

조선에서도 中井竹山보다 앞선 시기에 통신사행 규모의 축소를 통한 경비절감과 기강확립 및 문화교류방식의 정비 등 통신사행의 문제점과 개혁안을 元重擧가 사행 중 三使에게 제시하였음을 그의 <乘槎錄>卷4 甲申年 6月14日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일본의 이러한 외교정책의 진의는 조선에 대한 우월적인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외교정책 변화의 요인은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華夷意識을 등질적으로 일본에 전이시켜 조선에 적용하려고 의도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앞의 책』, 21쪽과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지성의 샘, 1994), 229-261쪽 참조].

이 대화에서 두 나라의 모습은 대비되어 나타난다. 조선은 명분으로서의 의리에 매여 과거에 연연하면서 예의와 체모만을 중시한 반면, 일본인들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보다 큰 세계에 눈을 돌리고 이를 자랑스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필담을 서술한 任守幹은 일본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넘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어 밝히고자 하는 적극적 태도 또한 아울러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漢文學 수준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어디에 이르렀는가를 사행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따져 물으면 엇갈린 대답을 하고 있으나<sup>20)</sup> 실제 일본을 체험한 후 조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의 학술은 긴긴 밤이라 일러야 가하며, 일본의 문장은 소경이라 해도 가하겠으나…대개 長崎島에 배가 통하자 중국의 문적이 많이 흘러들어 왔는데 개중에 뜻이 있는 자는 차차 문장에 나가게 되어 무진년에 와서는 글을 지어 주고받음이 자못 성했다 하였다. 이들이 이 뒤로 과연 문장으로 인하여 도를 배워서 차차 학문의 경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비록 섬 오랑 캐이긴 하지만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니, 오랑캐라 하여 끝끝내 버릴 수 있겠는가. 다만 천 년 동안 더러움에 물든 풍속만은 큰 역량 큰 안목이 아니면 창졸간에 변경하기 어려울 터이니 구구한 詩語를 가지고 앞서 보일 징조를 잡을 수는 없으리라.”(조/313-315)

일본의 學術에 대해서는 “긴긴 밤이라 일러야 가하며” 文章에 대해서는 “소경이라 해도 가하다”고 하여 절망적으로 표현한 반면, 詩文에 대해서는 戊辰年(영조 24년, 1748)의 사행 때보다도 酬唱하는 것이 훨씬 나아져 “구구한 詩語를 가지고 앞서 보일 징조를 잡을 수는 없으리라”고 할 만큼 급성장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에 조엄은 시문으로 그들을 교화하려는 조선통신사들의 의도는 일본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 것이라는 점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9) 任守幹, <江關筆談>, 『국역해행총재』IX(민족문화추진회, 1977), 235-238쪽.

20) 재미통신사가 귀환하여 복명할 때 영조가 일본 문사들의 문재에 대해 묻자 김인겸은 “문지가 유여흔놈 왕왕이 잇소나/시늬는 참혹하야 제술홀줄 모르더이다”(김/286)라고 하였으며, 조엄은 “저 사람들의 시는 대저 원숙한 篇이 없어서 죽히 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조/546)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元重舉의 <和國志>와 成大中の <日本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원증거는 일본을 중국에 전주어 “海中의 文明之鄉”으로<sup>21)</sup> 감탄하고 “십수년이 지나가면 비루하다고 알잡을 수 없을지 모른다. 이와 같이 써 놓고 기다려 본다”라고<sup>22)</sup> 할 정도였다. 그런가 하면 성대중은 일본 한문을 완전히 주변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이후로 가는 자, 나는 필시 곤란을 볼 줄 안다”고<sup>23)</sup> 하여 문학으로 일본을 대적하기 어렵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들은 일본의 진면목을 발견하여 대개의 통신사들이 갖고 있던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냉정하면서도 예리하게 지적하고 일본을 바로 보기 시작했으며 변모하는 일본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업을 비롯한 계미통신사들은 이전의 조선통신사와는 달리 닫힌 사회의 지식인으로서의 규범적인 사고만을 고집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시각은 일본의 文物制度 등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 3. 선진문물への 충격과 그 반응

18세기의 일본은 廣狹長短의 尺數가 정확했을 뿐 아니라 중국 및 서구 여러 나라들과의 통상으로 농업·광업·방직 및 조선술 등에 상당한 과학적

21) 元重舉, <和國志>卷2 「詩文之人」(李佑成 編, 栖碧外史海外蒐佚本, 亞細亞文化社, 1990, 330쪽) “大抵國中之人聰明早成 四五歲能操毫 十餘歲以長則咸能作詩 女子之能詩能書者甚衆 殆若唐人之詩外無餘事 雖謂之海中文明之鄉不爲過矣”

22) 元重舉, <和國志>卷2 「詩文之人」, 326쪽. “長崎之書邊通 見今家家讀書 人人操筆 差過十數年 則恐不可鄙夷而忽之也 書此以俟之”

23) 成大中, <日本錄> 「日本文學」(高麗大圖書館 所藏) “지금 에도의 인사들 사이에 시문이 극성해서 옛날에 비할 바 아니니, 이는 실로 物茂卿이 王·李의 학으로 창도한 성과다. 왕·이는 비록 浮華無實하지만 우리나라 문장은 실상 이에 힘입은 바 많으며, 이제 다시 동쪽으로 건너가서 秦聲能夏의 효험이 나타나니 이후로 가는 자, 나는 필시 곤란을 볼 줄 안다.” 이는 임형택, 「앞의 논문」, 328쪽에서 재인용하였음.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이미 근대화로 치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계미통신사까지 일본에 10여 차례나 사신들을 보낸 바 있었고, 이들이 남긴 기록 또한 방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한 글은 많지 않다.

이러한 통신사행에 대해 丁若鏞은 申維翰의 <海游錄> 跋文에서 “조선통신사들이 일본에서 의당 관찰해야 할 것은 오직 기술의 정교함과 여러 가지 조련하는 법인데 이 책에서는 그런 점이 빠져 있으니 한스러운 일”<sup>24)</sup>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조엄과 김인겸 등 계미통신사절은 일본의 역사나 지리를 알고자 했고, 특히 水車·물레방아·舟橋의 제작 방법 등 실용적 문물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수용·도입하고자 하는 주체적 의지를 보임으로써 편협된 일본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들의 일본 선진문물의 도입 의지는 그들의 단순한 관찰력이나 호기심 내지 신비감에서 발로한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를 부흥시켜 어려운 조선의 현실을 타개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한층 주의를 모은다. 실지로 계미통신사가 다녀올 무렵에 국내에서는 實學이 발흥하고 있었다는<sup>25)</sup> 사실에서 우리는 조엄 일행이 산업 경제 부흥을 위해 기술문명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종래에는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經世致用이나 利用厚生의 실천방안의 요령을 燕行하여 체험한 사실에서 찾았으나, 조엄 등이 저술한 사행록에서도 그들이 추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가치관과 일치하는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비중을 두어 이웃 선진국의 진보된 장점을 배워야 한다고<sup>26)</sup> 역설하게 되었다.

본장에서는 계미통신사행의 견문보고서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아 실학자들의 경제치용이나 이용후생이라는 실학적 사고의 일단이 형성되었을 것이라

24) 丁若鏞, 『與猶堂全書』卷14, <跋海槎聞見錄>

25) 임형택, 「앞의 논문」, 322쪽.

26) 그 단적인 예로 박제가는 『北學議』에서 오직 중국을 배우고 중국과 교역을 하여야만이 우리의 산업 경제가 부흥하여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通江南浙江商舶議>라는 글에서 일본은 중국과 상박이 직통하고 또 다른 30여국과도 교역한 결과 문화의 풍부성과 문명의 변화가 실로 놀라워진 나라라고 하면서 이는 다름 아닌 계미통신사가 직접 현지에서 목격한 바라고 소개하고 있다[홍희유·강석준 역, 『북학의』(여강출판사, 1991), 176쪽].

는 점을 추론해 보기로 한다.

### 3.1. 새로운 문물제도의 체험

먼저 도시경계의 번성한 모습을 들 수 있다. 조엄과 김인점은 일본 땅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과 그들의 눈에 비친 가옥 양식과 풍속들을 그곳의 지세 및 자연환경과 결부시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조엄은 上關의 포구의 지세를 보고 하늘이 만든 關防이라 감탄하며 그의 <해사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

“上關은 저 나라 水路로서의 요새가 되는 곳이다. 포구에 들어서니 사면이 딱 둘러싸여 산과 내가 수려하고 湖水가 널리 퍼져 있었다. 부산 內洋 보다는 조금 작지만 만일 그 포구 속에 배를 간직하고 포구의 언덕 위에 군사를 매복한다면, 아무리 만 척의 배가 온다 하여도 형세가 뚝고 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정말로 하늘이 만든 關防이라고 하겠다.”(조/131)

그리고 “대마도 지방은 동서가 3백 리, 남북이 80리이며 8郡 82浦로 나누었는데, 토지가 척박하고 생산되는 곡물이 매우 적어 주민들의 생활은 오로지 고기잡이로 해 간다”(조/65)라고 하여 그 자연적 지리 현상을 알려준(27) 동시에 이 지역과 우리 민족과의 關係史를 “대개 이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소속이었는데, 어느 나라 어느 때 일본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나…이미 조선의 옛 땅에서 살면서 대대로 조선의 圖書를 받으며, 또한 公米와 公木으로써 생활을 해 가니, 곧 조선의 변방 영토이다”(조/67)라고 서술하여 대마도에 대한 경제적 관계를 기본관점으로 한 과학적 인식 아래 대국의 시혜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서술은 江戶까지 가는 노정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는 그 고장의 자연과 지난 날의 인간생활 모습을 역사쪽에서 찾으려고 한 데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조선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해 기술하려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도시

27) 특히 조엄이 “대마도 지도와 인쇄된 일본 지도를 구득하여 下璞으로 하여금 模寫하게 하고”(조/57) “또 일본 지도 改正本을 얻어 畫師 金有聲으로 하여금 그리게 하였다”(조/155)는 데서 그의 지리에 대한 인식의 한 단편을 엿볼 수 있다.

경제의 번성함이 내심 충격적이었음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생활은 대체적으로 화려하고 사치해 보였으며, 인가가 매우 번성하고, 제도는 견고하고 긴밀하였다고 보고 있다.

“대개 그 閭閻은 집을 잇대고 지붕 대마루를 연달아서 끊어진 데가 없고, 井자를 그어 물을 나누어 경계를 문란시키지 않았으니, 자연 城郭의 형상과 같았다. …집들이 웅장하고 석회를 바른 담이 둘러졌으며, 길을 끼고 있는 長廊은 벽돌로 쌓고 회를 발랐는데, 모두 붉은 칠을 한 문에 잘 지은 집들이었다.”(조/206-207)

이같이 집의 구조와 건축기술은 주밀하고 방정한 것이 마치 먹줄을 치고 대패로 깎은 것같이 그 교묘하고 화려한 모습을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조·중·일 3국의 도시를 비교한 데서 일본의 大阪城은 “길쭉센 여염들이/접육 년장하고 변화 부러하야/아국 종노의셔 만박나 더하”(김/172)여 사신 중에 北京을 본 역관이 “둥원의 장너 하기 이에서 낮잔타”(김/176)고 하였으며, 鳴護屋은 “일노의 데일이라 둥원의도 혼티아니니/우리나라 삼경을 가륙다 하것만은/예비하여 보게되던 미물 하기 7이업고”(김/194) 게다가 江戸는 “누디제택 사치훈과 인물남녀 번성하다/성첩이 정장훈것과 고냥쥬쥬 괴특훈것/대판성 서경도곤 삼박나 더하다”(김/208)하여<sup>28)</sup> 일본의 도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해 있고 중국에 비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인점이 이전의 통신사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반감과 멸시를 강하게 드러내면서도 현실의 관찰에 있어서는 고루한 화이론이나 명분·관념론적 승례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경험론자로서의 면모 또한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한 예이다.<sup>29)</sup>

놀랍게도 이러한 태도는 사행 정사인 조엄에게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28) 조엄도 江戸의 번성함이 大阪이나 西京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좌우에 있는 閭閻들은 모두 層樓·高閣인데, 간혹 구리 기둥과 구리 기와로 세워진 집도 있었다. 第宅의 거대함과 인구의 번성함은 또한 大阪·西京의 비교가 아니었다”(조/189).

29) 박희병, 「앞의 논문」, 711쪽.

다. 부하는 물론 일본인과 조선인이 “한 하늘 아래 태어나 동일한 것”(조/57)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평등정신의 人本思想은 이미 尊華思想을 탈피한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이라는 해묵은 감정만 가지고 일본과 더 이상 적대적·배타적이어서는 안되며, 두 나라는 각기 독립된 개체로서 공존하는 관계임을 깨달은 조엄의 주체적 자각이었으며 일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市民意識의 성숙한 모습을 들 수 있다. 당시 일본에 파견되는 사절단의 규모가 장관이었던 것은 현전하는 使行圖를 통해서도 실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617년경 영국 동인도회사에서 파견되어 일본에 주재했던 리차드 콕스라는 사람은 조선국의 사행을 직접 목격하고서 일기를 남겼는데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특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렬은 굉장한 것이었다. 그들의 앞에서는 두세 군데서나 나팔을 불고 오브에를 불었다”고 했으며, 리차드 콕스가 江戸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를 조선 사행인 줄 오인하고 황급히 달려와 그들이 지나는 길에 모래와 조약돌을 깔았던<sup>30)</sup> 것으로 보아 사신들의 행차는 일본인들에게 큰 구경거리였던 것 같다. 그로부터 150년 후인 계미통신사행 때도 사신들의 행차가 이르는 곳마다 “다리 아래에는 작은 배들이 마치 고기 비늘처럼 모였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꼭 고슴도치털처럼 둘러 있어 바다 같고 피 같타여”(조/207)라고 표현하고 있다.<sup>31)</sup> 그리고 이들 행렬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복은 괴이하지만 그들은 모두 침묵을 지키고 떠들거나 날뛰는 형태가 없이(조/190) 정연한 태도에서 상당한 수준의 질서 의식과 나라의 ‘법령이 엄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발도것고 문도열고 난간도 의디흐며/마루의 안갓느니 집안히 그독하고

30) 김영전, 『임진왜란과 건일사절』, 『여명기의 조선』(정음사, 1948), 81쪽. 여기는 임형택, 『앞의 논문』, 323쪽에서 재인용하였음.

31) 이외에도 조선통신사행을 구경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해사일기> 여러 곳에 산견된다. 즉 “길가의 좌우에 모여 선 남녀들이 3-4리나 뻗었다”(조/74). “구경하는 남녀들이 뒤 언덕에 나열하여 人山과도 같았으니 인민의 번성함이 장하다고 하겠다”(조/141-142). “구경하는 남녀들이 개미가 모이고 벌이 둔친 것과도 같았으니, 인물의 번성함과 생활의 풍유함을 다 알 수 있었다”(조/145). “다리를 건널 때에는 港口의 위아래에 구경꾼을 실은 작은 배들이 머리와 꼬리가 서로 잇대어서 물이 보이지 않았다”(조/189).

기동의 메여시되 어른은 뒤히안고/아히는 압히안자 일시의 구술보되  
그리만흔 사뭇들이 혼소리틀 아니히고/어린아히 흑울면 손으로 입을막아  
못올게 흐는거동 법녕도 엄혹도다”(김/172)

더욱이 조엄이 대판성에 있을 때 먼저 보낸公私의 卜物은 봉합한 표지가 여전한 채 한 물건도 유실됨이 없이 도착한 것을 보고 “왜인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여 비록 믿을 수 없으나 이같은 처사에는 그들의 紀律이 엄한 것을 알 수 있었다”(조/193)고 그의 놀라움을 <해사일기>에 기록하고 있음으로 보아 당시 일본인들의 시민의식이 이미 상당히 높았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이와 같이 파도가 심한 바다의 험한 길을 직접 체험하고 일본 자연과 지세, 인물과 풍습 등을 보고 체험한 전문의 확대는 일본의 人文地理에 대한 사실과 변모된 일본관 및 달라진 일본의 모습을 비록 미비하나마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변모된 실상은 다음의 技術文明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이를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에서 좀더 상세히 살필 수 있다.

### 3.2. 선진문물의 수용

17세기 이후 조선은 임병양란으로 인해 황폐해진 농지에다 旱魃과 洪水 및 傳染病 등의 자연재해와 함께 관리들에 의해 자행된 인위적 재난의 결과로 농민들이 몰락하고 遊離乞食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영조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균역법을 실시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납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산업의 기간인 농업을 중흥시키고자 勸農의 敎書와 각종 행사를 마련하였는가 하면 『農家集成』·『救荒雜要』 등 農書를 중간하기도 하였다. 특히 농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기술 부문에 있어서는 堤堰堂上 備置와 堤堰改修 및 水車의 製造 등 水利政策에 역점을 두어 시행하였다.<sup>32)</sup> 이러한 시기에 사행을 다녀온 조엄과 김인겸은 일본에서 본 수차에 대하여 위치·제도·기능·효용성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32) 이춘령, 「한국농업기술사」, 『한국문화사대계』Ⅲ(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88), 58-64쪽 참조.

“물속의 수괴노화 강물을 쪼아다가/흙으로 인슈하여 성안으로 드러가니  
.....

좌우의 박은살이 각각스물 어둡이요/살마다 솟히다가 널흔나식 7면리아  
물속의 세워지니 강물이 널윽밀면/물내가 절로도니 살솟히 차근통을  
노호로 미야시니 그통이 물유써서/도라갈제 올라가면 통아히 말독박아  
공둥의 남굴미야 말독이 걸니면/그물이 빠다져서 흙속으로 드는고나  
물내가 빙빙도니 뽕통이 느려와서/쏘써서 순환하야 듀야로 불식하니  
인녁을 아니드려 생각회 늙흔우히/물이절로 너머가서 온성안 괴민들이  
이물을 바다먹어 브족들 아니하니/진실로 괴특하고 묘효도 묘효시고”(김/182)

이에 조엄은 “만일 그 제작 방법을 옮겨다가 우리나라에 사용한다면 논에 물을 대기가 유리하겠다”(조/157)고 여겨 그 모양과 제도를 別破陣 許叟와 都訓導 卞瓊에게 자세히 보게 하였다. 한편 박제가도 “현재 水利 운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려 흐르는 물을 막아 아래로 흘러서 밭으로 넘어 들어 오도록 하기를 기도한다. 이와 같이 설비하였으므로 폭우가 쏟아 질 때마다 논둑이 떠지여 여러 집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야단치게 되니 어리석기 한정없다”고 하면서 簡車·恒升·玉衡 따위의 수차에 비하여 그 효능이 십배나 되는 西洋系 수차인 龍尾車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sup>33)</sup> 이상과 같이 계미통신사의 전문보고서는 영조 때에 이르러 실학과 이용후생의 기풍이 질어지게 되면서 수리시설이 매우 진흥되어 灌溉用 水車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리 및 학자들이 다 같이 수차의 이용 보급에 많은 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보수성, 수차의 재목과 금속재료의 구득문제, 수차제작의 기술문제, 비용문제에다 水源, 雨量, 河川, 流水의 경사 등의 이유로 그 활용·보급에는 실제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sup>34)</sup>

계미통신사들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灌溉用으로의 揚水가 목적인 수차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산된 穀物의 搗精에 필요한 수차 즉 물레방아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세심한 관찰력을 보인다.<sup>35)</sup>

33) 朴齊家, 『北學議』 「外篇」 <繪菴李喜經龍尾車說>, 146쪽.

34) 이춘명·채영암, 『한국의 물레방아』(서울대출판부, 1986), 19-21쪽 참조.

35) 이성후는 「앞의 논문」(1988)에서 <일동장유가>에 나타난 실학적 고찰을 <해사일기>와 비교·서술하면서도 ‘유독 물레방아에 대해서만은 <일동장유가>외

“물레방아는 툽니바퀴가 서로 물려서 돌며, 前杠에 3개 방아와 2개의 杵臼를 달고 後杠에 맷돌을 달고 있는데, 물의 형편을 보아 가감할 수 있으며, 인력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한 수력을 빌어서 6-7군데에서 春磨하니”(조/241) 하루에 벼 다섯 섬을 짓고, 자전하는 물레살에 풀무를 달아 바람을 일으켜 겨는 날리고 쌀만 남는 아주 묘할 뿐만 아니라 효용성 또한 있어<sup>36)</sup> 보였다. 이에 조엄은 허규에게 뒤에 떨어져서 잘 살펴보았다가 돌아와서 그 만듭새를 전하도록 하자, 허규는 “그 제도를 자세히 보고 이미 그대로 모형을 그렸으니, 수백 금만 얻는다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조/241)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수리용 수차와 마찬가지로 농민의 보수성·재료와 기술의 부족·비용의 문제 등으로 그 이용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재미통신사의 전문보고에 힘입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용후생의 기풍이 진작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에 사용하던 소규모 家庭用 足踏式 다들방아를 곡물 가공용으로 편리하게 개조하여 사용하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물레방아식 수차는 관개용 양수와는 달리 꾸준히 이용되어 일제 하에서 기계방아식 수차로 개편될 때까지 존속되었다.<sup>37)</sup>

수리시설의 하나인 堤堰을 보고서도 제작 방법과 그 효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물이 부딪쳐서 포구가 떨어져 나가는 곳에는 큰 대나무로 죽부인 모양 같이 엮었는데 그 둘레가 한아름에, 그 길이가 한두 길도 더 되었다. 거기에 조각돌을 담아 제방을 하면 1-2년을 지탱할 수 있으며 그 후에 풀이 나서 언덕이 된다는 이 방법을 만일 우리나라의 서남해 堤堰에 사용하면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조/168) 그 실용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배를 잇대어 판자를 깐 다음 양쪽을 새끼나 철사 등으로 매고, 닻줄을 냇물이 흐르는 위아래로 늘였으며, 또 큰 기둥을 냇물의 양쪽에 세워 두 줄로 배다리를 묶어 주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우흐로 못인가가 평

에 통신사행의 어느 기록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혜순은 「앞의 논문」(1990)에서 이 물레방아를 ‘방직에 필요한 기계’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

36) “순환이 반복하여 하루닷섬 뿜는다니/그들의 묘한거슨 겨가 다 절로놀려/어딴로 가고업고 쌀만 남아시니/골풀모 모양으로 절로브람 나눈도다”(김/230).

37) 이춘령·채영암, 『앞의 책』, 13쪽과 21-22쪽 참조.

디쳐로 건너”(김/192)갈 수 있으며 아무리 큰 물이 있어도 부서지지 않을 듯하다(조/168)고 舟橋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계미통신사 일행은 기술문명의 도입의지 뿐만 아니라 국내의 잦은 旱魃과 洪水로 계속되는 흉년에 餓死者가 속출함에 백성들이 饑饉을 면할 수 있는 救荒作物에도 관심을 표명·도입하기에 이르른다. 통신사 일행이 대마도의 西泊浦에 가려다 풍랑으로 인해 大浦에 며칠을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고구마를 썰서 먹게 된다. 그 모양은 약재로 쓰는 何首烏와 같고 그 맛은 아주 좋았다. 그러므로 “이삐를 내어다가 아국의 심겨두고/간난한 穉성들을 흉년의 먹게후면/진실로 도컨마는 시절이 통한후야”(김/96) 取種하여 가져갈 수 없음을 김인겸은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엄은 대마도의 佐須奈浦에 도착했을 때 이를 취종하여 부산진으로 보냈다. 그는 이어 제주도는 이곳 대마도와 토질이 같으니 섬 작물로 장려하면 식량사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긴다(조/312). 실제로 조엄이 이때 고구마를 들여와 구황작물로서 민생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조엄과 김인겸은 “사대교린의 사신들의 왕래가 끊칠 사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은 끝내 하나도 배우지 못하면서도 그들을 ‘왜놈’이니 ‘오랑캐’니 하면서 비웃으며 천하의 모든 나라가 우리와 같다고 생각한”<sup>38)</sup> 이전의 통신사들과는 달리 기술에 있어서 만큼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들이 새로운 농작물과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사용코자 함은 그들의 일본관이 편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현실체험을 통한 이용후생적 관심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조선후기의 實學思想이 대부분 燕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시기 일본 통신사들의 체험과 견문 또한 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4. 마무리

38) 박계가, 『북학의』 「의편」 <兵論>, 197쪽.

본고는 英祖 39년(1763) 癸未通信使의 일원으로 일본에서의 체험을 기술한 趙職의 <海槎日記>와 金仁謙의 <日東壯遊歌>를 중심으로 18세기 對日 使行體驗의 문화적 충격 양상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조선은 계미통신사 이전까지 일본에 10여 차례나 사신들을 파견한 바 있었고 이들이 남긴 기록 또한 방대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을 미개하고 야만적인 국가·민족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과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기술문명을 통한 사회·경제 등 제분야에서 일본의 변모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미통신사행에 이르자 이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공식적인 절차 등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대일인식에 변화를 보인다. 그들은 일본에 이미 도입된 선진문물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일본인의 세계관과 조선을 대하는 저들의 태도 변화 등 관찰한 내용을 그들의 사행기록 속에 상세히 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보고서는 새로운 문물의 체험에 대한 경이와 함께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보는 마음 등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와의 정서적 공감 영역이라는 문학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학자들의 經世致用이나 利用厚生の 思考에도 이들 기록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해사일기>와 <일동장유가>는 使行體驗을 시간적 경과에 따라 日記體形式으로 기술하되, '한문산문'과 '국문가사'라는 서로 다른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조엄은 正使라는 직책상 공적인 업무수행에 치중하면서 사물이나 세계에 대한 개인적 소감을 서술하는 가운데 고정된 조선의 인습을 타파하려는 태도를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직책에 크게 얽매이지 않은 김인점은 여행 체험의 폭이 넓고 그 태도가 적극적일 수 있었다. 임무수행의 책임자가 공식적인 행동의 반경에 머물렀던 반면, 김인점은 관료·선비·장사꾼·기생 등 다양한 인물들과 어울리면서 市井의 곳곳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내용을 다채롭고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이렇듯 양자에는 關心 領域의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사건·사물에 대한 認識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자 각자 이에 적합한 장르를 선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본고를 바탕으로 이러한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